

투데이 칼럼

스티브 잡스를 키운 ‘스토리텔링’

‘아이폰’의 애플이 항상 잘 나갔던 것은 아닙니다. 1984년 컴퓨터 시장에 매킨토시 돌풍을 일으키며 화려하게 등장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소프트웨어가 출현하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1996년 매킨토시의 미국 내 점유율이 2% 밑으로 떨어지면서 10억 달러 적자를 냈습니다.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2500억 달러)의 1.6%인 40억 달러로 곤두박질했습니다.

이듬해 ‘경영 구원투수’로 돌아온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토니 페렐을 영입해 휴대용 음악재생기인 아이팟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오디오기기들은 카세트레이프나 CD(콤팩트디스크) 등으로만 재생할 수 있었고, 소비자들은 용량과 음질 등에서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잡스와 페렐은 디지털로 무한재생이 가능한 고품질의 오디오 주크박스를 생각해내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아이팟의 아버지’로 불리는 페렐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 <빌드 창조의 과정(BUILD An Unorthodox Guide To Making Things Worth Making)>에서



이 학 영
경제사회연구원 고문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시제품도 없었고, 디자인도 없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한지 10개월 만에 아이팟을 세상에 내놓았고,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단한 비결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 1주일에 90시간, 100시간, 또는 120시간씩 일하며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해서 음악재생의 판을 바꾼 디지털기기가 나왔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혁신제품의 의미를 급세 깨닫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잡스가 내놓은 슬로건이 소비자들을 확 깨어나게 했습니다. “1,000곡의 노래를 당신의 주머니 안에.” 아이팟은 세계 시장에서 1억대가 팔리며 애플

을 수렁에서 건져냈을 뿐 아니라, 후속 제품인 아이폰의 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페렐은 잡스에게 가장 크게 배운 것으로 ‘스토리텔링’을 꼽습니다. “잡스는 어떤 제품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하기에 앞서, 늘 먼저 그 제품이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 모든 걸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느껴지게 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잡스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대본을 읽은 게 아니었다. 제품 개발기간 내내 매일 똑같은 이야기를 직원들에게, 자신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면서 이야기를 계속 다들었다.”

설명 과정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거나 자세하게 말해달라고 할 때마다 스토리를 수정

해 나갔습니다. “위대한 비유는 어려운 특징이나 기능을 고객이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그런 다음 그걸 다른 사람에게 설명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페렐은 세상을 바꾸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진통제’에 비유합니다. “가장 뛰어난 아이디어는 비타민이 아니라 진통제다. 비타민은 건강에 좋긴 하지만 꼭 복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복용을 건너뛰어도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반면 진통제는 한 번만 복용하는 걸 잊어도 바로 결과가 나타난다.” 혁신 아이디어가 이와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뭔가가 너무 큰 좌절감을 느껴 그 문제를 파고들며 해결책을 찾아내려 애쓰는 사람들이 혁신을 일으킨다.”

잡스가 이런 혁신가였습니다. “그는 극도로 책임감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에게 경계를 넓힐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기업 관료주의로부터 개발팀을 보호했고, 실패를 용인해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게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답을 주는 대신 질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멘토는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대신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사설

전북대 미술학과 졸업전시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회화, 시각예술 전공 제34회 졸업 전시회가 11월 16일부터 21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작품은 강산 ‘두 세 겹 껴줘야 손에 냄새가 배지 않는다’ ‘끝까지 뚫혀버린 새끼들’은 약해에 둔해진 약인의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주어 스스로의 모습에 둔해지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었다.

강유진은 ‘바다의 감정 뎡장’ ‘시간의 흐름에서 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했다. 김한비 ‘It’s OKAY’ ‘Stress’는 졸업을 앞두고 느끼는 낯설고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을 금방이라도 탈을 쓴 캐릭터로 표현했다.

박종주는 ‘소통이란’에서 접점 단절되어가는 우리 소통이란 과연 무엇일가를 표현했다. 심재서는 ‘헛되지 않았음을 1, 2, 3’에서 방황의 흔적은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각자의 자리

에서 방황하고 있을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낸다.

윤주원은 ‘구슬치기, 2’ ‘멀어지고 가까워지는’에서 다양한 형태의 관계를 표현했다. 당신은 어떤 형태의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며 작품을 관람해 보자고 했다. 이하나 ‘파도’ ‘너울’은 가볍게 봤을 땐 아름답지만 자세히 보면 공포심을 유발하는 바다의 양면적인 모습을 담았다. 율혜는 전공 명칭을 회화, 시각예술 전공으로 바꾸고 첫 번째 진행되는 졸업 작품전이

다. 학생들은 오랜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율혜 전시는 드물게 7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다양한 주제의 작품 40여점을 전시하게 됐다. 졸업생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루고 우리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국내 3김 여사들의 수난

최근 정치권에서는 ‘3김 여사의 수난’이 화제다. 곤란을 겪고 있는 전·현직 대통령과 제1당 대표의 배우자는 모두 김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김씨는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직후 전·현직 의원 등 6명에게 10만원여치의 식사를 대접한 혐의가 인정됐다. 이 대 표는 “아내가 공개 소환 수사에, 법정에서 끌려다니는 장면은 남편 입장에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특검을 촉구하는 주말 장외집회를 여는 등 여론 총력전을 벌여왔다.

김 여사가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와 의견을 주고받으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며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앉기도 했다. 결국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아내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말 한마디라도 고맙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좀 순진한 부분도 있다”고 이해를 구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출장에 관여할 당시 주 인도 한국대사를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은 타지마할을 여행할 목적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고 4억 원의 세금을 탕당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고발했다.

문 전 대통령은 “치졸한 시비여서 그러다 말겠거니 했지만, 절임가경으로 논란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며 글을 올려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재언

지문 등 사전등록제도로 소중한 가족을 지켜주세요

지난해 우리나라 치매 환자 실종 신고는 1만 4677건,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실종 신고 건수는 8440건이다.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2만 5028건으로 21년까지 감소했으나 다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실종됐을 때, 더 빨리 보호자를 찾도록 돕는 ‘사전등록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문이나 인적사항을 등록하면, 실종됐을 때 더 빨리 찾을 수 있어서다. 지난 2020년 1월 경찰청은 실종 아동을 찾는데 평균 56시간이 걸리지만, 사전 자료를 등록한 아동은 평균 52분에 그친다는 통계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렇게 빨리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지문 외 주요 인적사항과 인상착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을 함께 등록하기 때문이다.

사전에 정보를 등록하니 경찰도 수색 범위와 검색해야 할 대상을 특정하고, 찾았을 때 지문으로 빠르게 당사자를 조회할 수 있다. 또한 올해 2월에는 소형 지문 스캐너 및 업무용 스마트폰으

로 현장에서 지문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실종된 사람을 찾는 속도는 더 빨라질 예정이다.

경찰청 공식 앱 ‘안전Dream’에서도 지문 사전등록제도를 이용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동, 여성, 장애인 경찰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다른 경찰업무도 지원한다. 현재 실종된 사람을 찾거나, 학교폭력 신고 및 생활안전지도 등을 통해 아동안전지킴이집, 노인보호시설, 아동보호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등의 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성인가출신고 건수는 5만 3416건이며, 이중 1084명은 가족 결연로 돌아오지 못했다. 성인 실종건수는 통신 및 화상기술 등의 발전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를 더 줄이기 위해서는 24시간 이내 실종자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특히 보호자 없이는 취약한 아동과 노인들은 이러한 사전등록제도가 큰 도움이 된다.

장운서우주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여성청소년계 경찰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손팻말 들고 행진하는 네팔 소인종 협회 회원들



3일(현지시간) 네팔 카트만두에서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소인종(小人症) 협회 회원들이 각종 손팻말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매년 12월 3일은 유엔(UN)이 국제 기념일로 지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